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 558-1106 / Fax.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주 안에서 사랑하라! ”

■ 고전 1:26-3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반면에 인간들의 지혜와 힘은 아무리 탄복할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더욱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할 뿐입니다.

1.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30절).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이나 인간의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인생의 승수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품 안에서 성장케 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발판이요 뿌리가 다 어머니 품이었듯이 우리의 거듭남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숙해 감을 목상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완전하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문구를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우리는 법정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없는 자로 서야 하며 예배하는 성전에서는 상대적으로 흠이 없는 자로 서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 분의 거룩은 완벽한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또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 것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지혜가 되셨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의로움이 되셨다. 셋째로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3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다는 것을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요구를 만족케 하신 것 때문에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것이 됨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맺는 말

어둠이 너무나 길게 깔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위하여 기를 높이 달아야 합니다. 매시간마다 삼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과 놀라운 은총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 등교수업이 시작되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지만 아직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합니다.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처럼 실시간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처럼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접속방법은 이전처럼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아울러 기존 참석했던 예배와 다른 시간의 예배로 옮겨 참석할 성도님들과 새로이 교회예배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사무국이나 교구간사님들께 알려주시되 가능한 1,2,3부보다 4부 예배를 선택해 주시면 분산배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사),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히스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강화정, 우상씩(강경옥(인도), 서광종(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리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정범(한미순(일본), 김낙형 - 오경(캐나다),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버이, 필리몬, 프란스프,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사누밴도, 보디스프, 린롱, 수관준(영글리데시) / 감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찬(홍성일(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카스카르)		

“ KOINONIA : 그리스도인의 교제 ”

■ 이종윤 원로목사

성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로 읽는다. 고전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는 공동체 연합(association) 또는 참여(공동경영, partnership)을 뜻한다. 플라톤은 남녀공학을 위해 남자가 여자와 코이노니아를 한다고 했다. 공동체 개념을 표현하기도 한다. 후기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를 기쁨과 고통 같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서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였다. 이처럼 코이노니아는 너그럽게 나누는 정신으로 쓰였다. 현대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주로 내포한다. ① 사업상 동업자를 말한다. ② 결혼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즉 인생의 코이노니아를 갖기 위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 ③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쓰인다.

신약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18회 나온다.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연구해 봄으로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넓고 깊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정을 나누는 뜻으로 코이노니아가 쓰였다. 타인의 동반자로 사는 것이다.(행 2:42, 고후 6:14) 그리스도인 지식의 기반이 우정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다.(요1서 1:3) 그리스도와 사귀어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

②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기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을 때 코이노니아를 세 차례 사용했다.(롬 15:26, 고후 8:4, 9:13) 성도의 교제는 아주 실제적이어야 한다.

③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한다.(빌 1:5)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고 있다.

④ 믿음 안에서 코이노니아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의 일원이다.(엡 3:9)

⑤ 그리스도인 삶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고후 13:13, 빌 2:1)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산다.

⑥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즉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에 부름을 받은 자다.(고전 1:9) 이 교제는 특히 성찬식을 통해 볼 수 있다.(고전 10:16)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성례식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서로가 연합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그리스도와 교제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빌 3:10) 반면에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가 아파하시고 고통 중에 계신다. 내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누는 것을 아는 기쁨이 성도에게는 있다.

⑦ 아버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도 있다.(요1서 1:3)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는 어둠에서 행하지 않는 윤리적 제한이 있다.(요1서 1:6)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는 성도끼리 서로 묶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다.

고전 헬라어에서 Koinonein(코이노네인)이라는 단어 즉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형이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한다. 비즈니스나 의견을 나누거나 동의할 때 쓴다. 현대 헬라어에서는 다른 사람과 행동을 나눈다. 또는 공동 소유를 나눌 때 쓰인다. 그리고 생명을 나눌 때 사용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모든 인간이 인간 본성을 나눈 자(히 2:14)라고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서로 나눈다(롬 12:13, 15:27, 갈 6:6)고 가르친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벧전 4:13)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이다.

고전 헬라어 Koinonos(코이노노스)는 분담자, 동업자라는 명사다. 신약성경에 10회 나온다. 행동에 참여하는 것 즉 조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한 바리새인의 말을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쓰셨다.(마 23:30)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어부로서 동업자 즉 코이노노스였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 동역자라 했다.(고후 8:23)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빌레몬 1:17) 하면서 오네시모를 위해 변호했다. 이것은 경험도 나눈다.(고전 1:7, 히 10:33)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노스다.(벧후 1:4)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이 성도의 삶 속에 있을까?

-한국장로신문 [제 1326호] 2012년 6월 30일 발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V 오후 4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33: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1(시1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63(19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2: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증거와 믿음!”...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447(44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하였노라(고전 2:5)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9:4-5 인 도 자

찬 송 304(40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막 8:27-30 인 도 자

설 교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인터넷 영상

찬 송 305(405)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1-7, 7-3, 11-5, 13-14, 14-5~6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4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41명	234명	1,475명	1,859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5/1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17일	헌 금	24,883,400	
	교회학교운영비		198,200
	선 교 비		2,300,000
	출 판 비		210,000
	구 제 비		30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2,600,000
	복리후생비		97,600
	통 신 비		125,400
	차량유지비		519,252
	소모품비		378,090
	수선유지비		125,000
	환경유지비		71,800
	식당운영비		137,640
	합 계	24,883,400	7,562,982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